READER'S PAGE

〈내일교육〉 독자 전용 3월 월례 강좌 엿보기

코로나19·정시 확대·학생 감소 변수 많아진 체대 입시 대비법은?

독자와 호흡하는 〈내일교육〉의 야심찬 프로젝트, '월례 강좌'가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3월 주제는 '체대'였는데요.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입시 정보를 얻기도 실기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 전공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교육〉은 지난 몇 년간 공교육 현장의 체대 입시 전문 선생님들과 손잡고 관련 기사는 물론 강좌도 꾸준히 진행해왔죠. 이번 온라인 강좌도 체대 입시 전문가 경기 상현고 노동기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자녀 입시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_체대 입시'라는 이름으로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 자녀·제자를 둔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체대 입시의 특성과 최근 경향을 짚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와 학생 수 감소, 주요 대학의 정시 확대, 수시 학생부 평가 등 학생들의 지원·합격에 영향을 미친 변화·변수가 많죠. 노 교사는 지난해 입시 결과와 발표된 요강을 바탕으로 꼼꼼한 분석을 전했습니다.

수시 지원자들에게 필요한 선택 과목과 독서 활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했고요. 이에 독자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체대 입시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월례 강좌는 '인문 계열 학생들의 수학 활용기'를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 선배들이 수학과 친해졌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펼칠 예정이니, 잊지 말고 신청해주세요!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강좌 안내와 신청은 〈내일교육〉 홈페이지(www.naeiledu.c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4월 월례 강좌는 곧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4월 월례 강좌 진행을 맡은 〈내일교육〉 표희수 본부장, 노동기 교사(사진 왼쪽부터).

2022학년 주요 대학에서 정시가 확대됩니다. 체대도 다르지 않죠. 노 교사는 "서울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줄고,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까지 강화됐다. 학업 역량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다만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다릅니다. 노 교사는 "학생 수 감소로 충원이 과제인 곳이 많아, 수시 모집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내신이나 수능 비율도 낮추고 실기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다. 다만 이 경우 경쟁률이 높고, 지원자의 실기 실력이 상향평준화돼 있다"며 학업 역량을 다져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독자들의 3월 월례 강좌 생생 후기

"다양한 정보를 얻어갑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라 지역·성적대별 지원 대학 정리표가 아주 유용했습니다."

"공교육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체대 입시를 꼼꼼히 분석해주셔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체대 입시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요즘 체대 입시 트렌드를 알게 됐습니다. 또 체대 내 다양한 전공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정리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소수가 듣는 강의라 그런지, 개별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도움됐어요. 특히 고3을 위해 강의 후 더 질의응답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